



우즈베키스탄

I. 일반개황

면적	44.7만 Km ²	G D P	105억 달러(2004년)
인구	26백만 명(2003년)	1 인 당 GDP	396달러(200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um(숨)
대외정책	CIS 결속, 친러강화	환율(달러당)	1,180.0(2005년)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인구 2,6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국가로서 핵심산업인 면화산업을 비롯하여 석유, 가스, 금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느린 편이며,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해 반정부 세력 확산 가능성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구소연방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외교노선의 바탕하에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 및 대 테러전 수행을 지원하는 등 친서방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최근 현 정부의 인권탄압 등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인해 미국 등 서방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의 정치·경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경제성장 지속: 금 및 면화 수출 증가, 수입억제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따른 국내생산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e	2006 ^f
경제성장률	3.1	1.5	7.1	6.1	6.3
재정수지 / GDP	-0.8	-0.4	-0.4	-0.7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4.2	13.1	1.7	6.1	6.9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증가에 힘입어 2004년 경제성장률은 7.1%를 시현하였으며, 2005~06년 중 경제성장은 러시아 기업의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 국제 금시세 강세 및 면화가공능력 향상 등으로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숨화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금융정책을 고수하던 금융 당국은 2005년 들어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 등 금융정책을 다소 완화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 소폭 확대: 의료, 교육 분야 등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화 및 금을 제외하면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등 직접세수 기반 취약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경제정책 및 구조

- 경제개혁 부진: 우즈벡 정부는 점진적인 시장경제체로의 전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의한 제조업 발전, 민영화,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및 환율 단일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현 집권세력의 개혁의지 부족, 열악한 투자환경에 의한 외국인투자 부진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취약한 경제구조: 2002년 기준 분야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 43.8%, 농업 34.6%, 제조업 21.6%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300만 명(2001년 기준)으로 농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특히 면화는 2002~04년 기간 중 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최대 외화획득원으로 면화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는 등 경제구조가 취약함.
- 석유, 가스, 금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인근 CIS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또한 금은 생산량 세계 4위로 수출액의 약 10~20%를 차지하며 면화에 이은 2번째 주요 수출품목임.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o
경 상 수 지	-116	98	863	937	922
경 상 수 지 / G D P	-1.0	1.0	8.7	9.1	8.6
상 품 수 지	196	324	835	1,230	1,310
수 출	2,740	2,510	3,240	4,290	5,130
수 입	2,554	2,186	2,405	3,060	3,820
외 환 보 유 고	903	850	1,162	1,546	1,475
총 외 채 잔 액	4,800	4,700	5,000	5,100	5,0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1.3	48.4	50.0	49.5	46.7
D. S. R.	26.8	25.2	21.3	27.2	22.7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 열악: 시장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입 부진에 따른 자본 부족, 지속적인 경제침체 및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은행 등 금융부문이 매우 낙후되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낙후된 제조업, 관료주의 팽배, 잦은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이 열악함.

3. 대외거래 동향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증가폭 둔화: 주요 수출품목인 면화의 국제시세 하향추세에도 불구하고 면화 생산이 증가하였고, 금의 국제시세 상승, 에너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GDP 대비 9%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증가폭이 둔화되어 2004년 보다 소폭 하락한 8.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 부진: 구소련권 국가 중 열악한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부진한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2004년 이후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석유·가스 부문에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서방측 투자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임.(EBRD는 최근 우즈벡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
- 외환보유액: 국제 금시세 상승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2004년 말 기준 약

1,54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등 외환사정은 조금 개선됨. 그러나 2005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폭 둔화 및 경상수지 흑자 소폭 감소로 인해 1,4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외채동향: 2005년 외채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규모 및 수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임. 그러나 외채구조는 중장기채무가 85%이고 중장기채무의 90% 이상이 정부 보증부 공적채무로써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편이며, 2004년 하반기 이후 외환사정도 나아지는 등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 불능 위험이나 리스케줄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최근 구소련 공화국들의 시민혁명 바람과 안디잔 유혈사태로 정치적 불안정 고조

- 2003~2005년 기간 중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로 이어지는 시민혁명 등에 긴장하고 있던 카리모프 정권은 2005년 5월에 동부지역의 안디잔에서 지역유지에 대한 체포로 촉발된 평화적 시위가 교도소 점거 및 반정부 인사 석방 등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자,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보안군을 지휘하며 강경 무력진압에 나서 유혈사태로 확대됨. 이후 EU 등 서방측과 UN은 진상조사 등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외부세계의 지원 아래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이슬람 반정부 과격단체의 소행으로 주장하며, 서방측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유혈사태는 정부의 강경 무력진압 및 철저한 언론통제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으며, 현재까지 일단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통제와 카리스마 있는 야당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야당세력의 결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혁명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안디잔 사태로 카리모프 정권 기반이 약화되고,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세력이 장기간 경제침체와 생활고에 따른 불만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이슬람 과격세력과 힘을 합칠 경우 시민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카리모프 정권의 계속된 실정으로 집권세력 내부간(사마르칸드파와 타쉬켄트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력다툼 과정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음.

2.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고와 안디잔사태 이후 사회적 불안 가능성 높아짐

- 안디잔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는 카리모프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 실정 및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고에 있는 만큼, 향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일반 주민들의 소요 가능성이 높음. 비록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반정부 세력의 결집력 부족으로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슬람 과격세력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지세력을 넓혀갈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3. 친러·친중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서방 관계는 악화되고 있음.

- 우즈벡 정부의 안디잔 사태에 대한 EU 및 UN의 진상조사 요구 거부 및 우즈벡 영내 미군 공군기지 철수 등으로 미국 및 서방측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미국 및 EU도 경제원조 중단 및 안디잔 관련 고위 공무원의 해외자산 동결 등 일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전략적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와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에 밀리던 러시아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디잔 사태에 대한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을 옹호함. 이에 따라 우즈벡 정부와 러시아와의 정치·경제·군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
- 중국도 상하이협력기구 일원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 목적에서 우즈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 OECD : 7등급 ('04.1) → 7등급 ('05.1)
- Euromoney : 135/185 ('04.9) → 131/185 ('05.9)
- I.I : 125/173 ('04.9) → 127/173 ('05.9)
- S&P, Moody's: 신용등급 없음.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장기 공공부문 거래에 대한 인수 중지
- Atradius :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 단기인수 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 태도 등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적채무 상환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원면, 금 등 수출을 통한 경회수입으로 공적외채 중심으로 상환 또는 rollover하고 있으며,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음.

V.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은 약 2,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카리모프 대통령 등 집권층의 장기집권에 따른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불안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시민혁명 여파와 안디잔 유혈사태 이후 카리모프 정권이 인권탄압 중지, 언론자유화, 실질적 야당세력의 형성 등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및 사회 불안 가능성이 있음.

【유 재 형】